

수업 단위	속담으로 즐기는 제주어			차시	4/17차시
일시 및 대상학년	고등학교 전학년	수준별	공통	장 소	각 학교별 활동 교실
수업목표	■ 제주어 속담을 통해 제주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. ■ 제주어 속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.				
지도상의 유의점	■ 제시된 속담은 제주 고유의 속담이 아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속담에 가까운 것이다. 그러므로 모르는 속담의 뜻을 파악하고 제주어 어휘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. ■ 제주 고유의 속담에 반영된 제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이야기 등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다.				
수업 단계	전개 과정	학습 요소	교수학습 활동		시간 및 유의점
도입	도입	전시 학습 확인 수업안내 학습 목표	☐ 전시학습 확인 ☐ 수업 안내 ☐ 학습 목표 제시		7분 PPT2 PPT3
전개	전개	학습활동	☐ 학습활동 1: 제주어 속담을 읽고 해석해 보자. (1)~(12)		36 분 PPT4~16
정리	형성평가 정리	형성평가 차시예고	☐ 형성 평가 ☐ 차시 예고		7분

수업 단위	속담으로 즐기는 제주어			차시	5/17차시
일시 및 대상학년	고등학교 전학년	수준별	공통	장 소	각 학교별 활동 교실
수업목표	■ 제주어 속담을 통해 제주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. ■ 제주어 속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.				
지도상의 유의점	■ 제주 고유의 속담에 반영된 제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이야기 등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다. ■ 제시된 속담들은 「제주도속담사전」에 수록된 것으로 제주 특유의 사회적·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한다. 학생들이 속담을 읽고 해석한 후 그 속에 반영된 사회상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				
수업 단계	전개 과정	학습 요소	교수학습 활동		시간 및 유의점
도입	도입	전시 학습 확인 수업안내 학습 목표	■ 전시학습 확인 ■ 수업 안내 ■ 학습 목표 제시		7분 PPT
전개	전개	학습활동	■ 학습활동 2: 제주어 속담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해 보자. (1)~(12)		36분 PPT4, PPT 17~28
정리	형성평가 정리	형성평가 차시예고 과제 부여	■ 형성 평가 ■ 차시 예고		7분 PPT

학습활동 1. 제주어 속담을 읽고, 표준어로 바꿔보자.

- (1) 굴개비 멘주깃적 생각 못 혼다.
- (2) 니가 엇이민 닛몸으로 먹나.
- (3) 돌민 습지곡, 쓰민 바꾼다.
- (4) 먼 뒷 켜당 이웃 사름만 못 혼다.
- (5) 쉼 일러사 쉼왕 고친다.
- (6) 으름 흘를 놀민 저슬 열를 굶나.
- (7) 존소낭 밧디서 바눔 좇기다.
- (8) 칭도 약이엿 흥민 쓴다.
- (9) 콩으로 메줄 쏜텅 골아도 고정 안 듣나.
- (10) 털민 구듬 안 날 사름 엇나.
- (11) 풀 보른 바구리에 쟁이 드나들 듯 혼다.
- (12) 허물이 커사 고롬이 한다.

예시답안

- (1)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.
- (2)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.
- (3)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.
- (4) 먼 곳의 친척이 이웃 사람보다 못하다.

- (5) 소를 잃어야 외양간 고친다.
- (6) 여름 하루 놀면 겨울 열흘 굶는다.
- (7) 잔 소나무 밭에서 바늘 찾기다.
- (8) 꿀도 약이라고 하면 쓰다.
- (9) 콩으로 메주를 쑤다고 해도 콩이 듣지 않는다.
- (10)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.
- (11) 풀 바른 바구니에 쥐 드나들 듯 한다.
- (12) 종기가 커야 고름이 많다.

학습활동 2. 다음 제주 고유의 속담을 읽고 의미를 이해해 보자.

- (1) 굴갱잇즈록 심을 중 알아사 살림이 노(느)고록(못)한다.
- (2) ㄴ레도 중수리가 이서사 쓴다.
- (3) 노리가 지 오곰에 민나.
- (4) 두루 죽은 영장 혼 불른다.
- (5) 당 오백, 질 오백
- (6) 몰ㄴ레에 앓인 놈이 고치장 타령(랑)한다.
- (7) 붓뒤(디)창옷 안 입어난 사름 정승(성·싱)가민 박접한다.
- (8) 실 때 믋음(슴) 달르곡, 엇(웃)을(일) 때 믋음(슴) 달른다.
- (9) 테 손 땅 내불지 못한다.
- (10) 펜안이 가난
- (11) 훌어멍 혼다니 말라 씨로 안 난다.
- (12) 침떡 닢(니)만이 먹으민 식(시)참은 더 건나.

예시답안

1. 굴갱잇즈록 심을 중 알아사 살림이 노(느)고록(못)한다.

(호밋자루) 잡을 줄 알아야 살림이 넉넉하다.

[해설] 농촌에서는 김매는 일을 천직으로 알아야 한다. 그러니 호미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밭이랑에 앉아 풀을 딸 수 있는 근력이 없고서는 생계 해결의 결격자가 되고 만다. 여기서 호밋자루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, 한마디로 극근극기의 자질을 드러내는 말이다. 농촌의 생활은 밭일을 할 줄 모르면 가난의 멍에를 벗을 수 없게 된다. 오직 호미를 수저처럼 가까이 해야 살림에 여유가 생겨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.

[용처]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근로가 중요함을 강조할 때

2. ㄴ레도 중수리가 이서사 쓴다.

(맷돌도 중수리가 있어야 쓴다.)

*중수리: 맷돌 아래쪽 한가운데 뾰족하게 깎아서 박은 나무

[해설] 맷돌은 위아래 두 개의 짝으로 돼 있는데, 아래쪽 한가운데는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박아놓은 ‘중수리’가 있고, 위쪽의 한가운데는 그 ‘중수리’가 들어갈 구멍이 파져 있다. 그래야 맷돌질을 할 때 위아래짝이 아귀가 잘 맞아 돌아가게 된다. 것처럼 ‘중수리’는 위아래 맷돌짝이 아귀가 잘 맞아 일정한 궤도를 돌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구실을 하게 된다. 만일 그 ‘중수리’가 없으면 맷돌은 제 기능

을 발휘치 못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.

[용처] 중심요체의 중요성을 일깨울 때

[유사] 구슬이 닳 말이라도 고망이 었으면 못 켜다.

놀이 커도 주쟁이가 으뜸인다.

3. 노리가 지 오곰에 민나.

(노루가 제 오곰을 민는다.)

[해설] 야생동물인 노루의 장기 중에 하나는 달리기이다. 발 빠른 사냥개도 들판에서 달리기로 맞서서는 당할 수가 없다. 그만큼 노루는 빠른 다리의 오곰을 이용해서 적을 따돌린다. 그러다 보면 제 다리를 과신한 나머지 자기보다 더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쉽다는 것이다.

[용처] 제가 가진 장기를 과신할 때

4. 두루 죽은 영장 혼 불른다.

(덜 죽은 영장 혼 부른다.)

[해설] 유교의 장례 절차 중에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나 마당에서 죽은 사람이 입던 적삼을 들고, 그 연령과 이름을 세 번 불러 육신에서 떠난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초혼의 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다. 문제는 숨이 완전히 끊겨 죽었을 때 해야할 초혼을, 죽지 않았는데도 성급히 혼을 부른다면 이만저만 엄청난 과오가 아닐 수 없다. 이처럼 무슨 일을 확인하지 않고 서두르면,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니 주의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.

[용처] 졸속한 일처리를 풍자해서 나무랄 때

5. 당 오백, 절 오백

(당 오백, 절 오백)

[해설] 조선 숙종 임금 때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에 의해 소각되기 전에는 제주도에 절간과 당의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돼 있다. 그 수요가 무려 500개씩이었다면 짐작이 간다. 그렇다고 꼭 500개씩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, 그 정도로 불교와 무속신앙이 한데 어우러져 상황을 이루었다는 것이다.

[용처] 당과 절이 많았음을 일컬을 때

[유사] 저 산뒤엔 강 오백 / 이 산 앞엔 금 오백 / 저 산 우원 절 오백 이 산 아랫 당 오백(맷돌·방아 노래)

6. 물그레에 앓인 놈이 고치장 타령(랑)한다.

(연자매에 앓은 놈이 고추장 타령한다.)

[해설] 말로 찢는 방아인 연자매에 앓은 주체에 고추장을 찾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. 이와 같은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모를뿐더러 사리분별을 헤아리지 못함이다.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앓았으니, 제 분수를 몰라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.

[용처] 주체파악을 못한 처신을 비꼰 때

7. 붓뒤(디)창옷 안 입어난 사름 정승(승·성)가민 박접한다.

(배내옷 안 입었던 사람 저승가면 박대한다.)

[해설] 선조들은 출산 때 갓난 아기에게 배냇저고리를 입히는 것이 관습이었다. 없으면 남의 것을 빌어

다가 입히기도 했다. 그만큼 배냇저고리는 그 아이의 무병장수를 위해 입어야 하는 통과 의례에 따른 산속의 하나로 돼 있다. 만일 배내옷을 못 입고 자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가며 불품없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멸시당하는 수모를 겪는다는 것이다.

[용처] 출생 시 배내옷 착용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

8. 실 때 먹음(슴) 달르곡, 엇(웃)을(일) 때 먹음(슴) 달른다.

(있을 때 마음 다르고, 없을 때 마음 다르다.)

[해설] 있을 때 마음이란 생활이 넉넉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의 마음 가진이고, 없을 때 마음이란 생활이 쪼들려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의 마음가짐이다. 그런데 묘한 것은 있을 때의 마음가짐이 자칫하면 없는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자만과 오만을 부리기 쉽다는 사실이다. 또 가난에 쪼들릴 때는 남의 도움을 고맙게 여긴 나머지 언젠가 이 어려운 고비는 넘기는 날 남을 돕겠다고 다짐하지만,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려웠을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.

[용처]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마는 사람의 마음을 꼬집을 때

[유사] 들어갈 때 먹음 달르곡 나올 때 먹음 달른다.

똥 먹러울 때 걸음 달르곡, 눈 때 걸음 달른다.

9. 태 손 땅 내불지 못한다.

(태 사른 땅 내버리지 못한다.)

[해설] 태 사른 땅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말한다. 출산 후에 태반은 묻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관습이다. 어쩌다 외지에 가서 살게 되는 경우, 그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고향을 생각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간절하다. 그것은 나이가 드령갈수록 더해서 망향의 정이 사무쳐 항상 고향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다.

[용처] 망향의 정을 되새길 때

[유사] 내 땅 가마구니 검어도 아깝나.

10. 편안이 가난

(편안이 가난)

[해설] 여기서 편안은 고된 노동은 않고 놀면서 지내는 상태의 삶이다. 그런데 문제네 브렇게 편히 지내면 살 수 없다는 데 있다. 열심히 일을 해도 그날그날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당시에는 편히 지내 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해결해낼 수가 없다. 일을 덜하고 한가롭게 생활하다가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.

[용처] 나태하고 안이한 삶을 경계할 때

[유사] 손이 놀민 입도 논다.

11. 홀어멍 훈다니 말라 씨로 안 난다.

(홀어미 야단치지 말라 씨로 안 낳는다.)

[해설] 옛날은 남편이 없는 홀어미는 팔시 받기 일쑤이다. 조금만 흠집이 보이면 나무람을 당하는 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. 누가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닐진데, 너무 홀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.

[용처] 과부를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기 바랄 때

12. 찹떡 뇌(니)만이 먹으면 쇠(시)참은 더 걷나.

(시루떡 이만큼 먹으면 시오리는 더 걷는다.)

[해설] 찹떡이 다른 떡에 비해 유난히 맛이 더 있다거나 요깃거리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. 오히려
식으면 진기가 약해 잘 부스러진다. 그 부스러진 것을 이만큼 먹으면 시오리를 더 걸을 수가 있다는
것은, 먹을 것이 귀했던 당시의 식생활난이 극심했음을 드러낸다. 곡기가 들어간 것은 조금만 먹어도
힘이 나서 생기를 북돋을 수 있다는 것이다.

[용처] 음식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

[유사] 설귀떡 뇌(니)만이 먹으면 쇠(시)참은 더 걷나.

▣ 학습참고자료

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관 <http://culture.jeju.go.kr/contents/?mid=020501>

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소개 <http://www.jeju.go.kr/contents/?mid=0101040501>